



“협상도 투쟁... 힘 결집 중요”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7일 “협상도 투쟁이며, 협상 국면일수록 상대방에게 우리의 힘을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이날 본사 7층 사장실 앞 집회에서 사측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며 “지금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 위원장은 KBS 노사가 지난 5일 잠정타결안을 도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른 파업 사업장이 타결됐다고 해서 우리도 대강 마무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부분은 끝까지 따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박 사장에게 유리하고 노조가 불리해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급함 없이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협상하면 어느 파업 사업장보다도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한 대로 이날 박정찬 사장 출근 저지를 푸는 대신 집회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9시15분께 출근한 박 사장은 7층에 모인 조합원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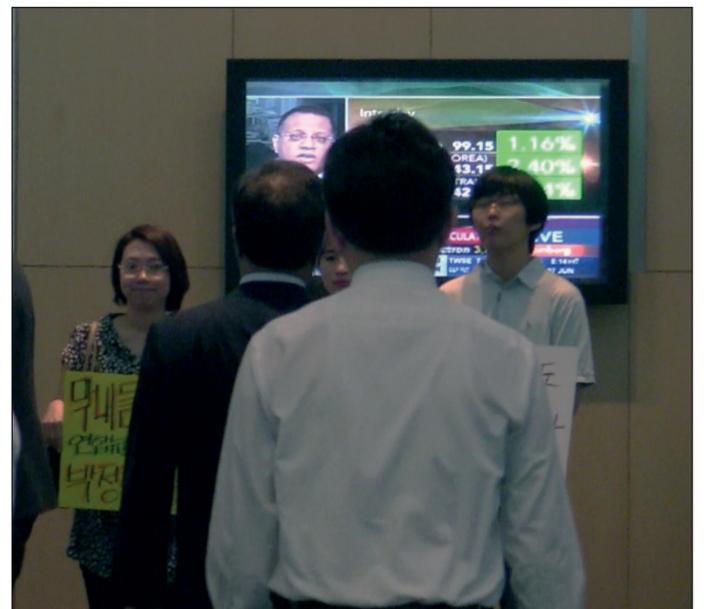
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장실로 들어갔다.

노조는 이어 오전 11시부터 사옥 주변과 종로 등에서 6~7명씩 조를 나눠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을 거듭할수록 연합뉴스 파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우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전했다.

조합원에게 먼저 다가가 파업 홍보물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 “연합뉴스 사정은 잘 알고 있다. 힘내라”며 격려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승객들이 창밖으로 연합뉴스 조합원들의 피켓 선전전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다.



시민 성금답지 늘어...연합뉴스 파업 지지 확산

연합뉴스 파업이 대외적으로 지지와 호응을 얻으면서 시민 성금도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 파업 초반 노조에 답지한 투쟁기금이 주로 연합뉴스 사우와 지인이었다면 5월 전후론 일반 시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일엔 ‘조국을 걱정하고 사랑하

는 미주한인들’에서 106만원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5월에 연합뉴스를 비롯해 MBC, KBS, YTN, 국민일보 등 파업 언론사를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 십시일반 모은 돈을 노조로 보내왔다.

또 ‘힘내세요’, ‘지지해요’, ‘이겨라!’

란 응원과 함께 1천~2천원을 기탁한 이들도 많았다. 파업 이후 연합뉴스노조로 성금을 낸 시민들은 295명에 달하고 액수도 379만원가량 된다.

파업 80일이 넘었음에도 사원들의 성금 기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취재 본부의 한 부장급 선배가 노조로 50만

원을 보냈다. 지난달 말 한 고참 사원은 익명으로 100만원을 기탁했고, 한 특파원은 110여만원을 보내왔다.

한 조합원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금이 비록 액수는 적지만 우리 파업에 대한 지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소중하다”고 말했다.